

강남대 약술형논술

국어

목차

2026학년도 인문사회계(A형)	3
문항 1	3
문항 2~3	5
문항 4	8
문항 5	10
문항 6	12
문항 7	14
문항 8	16
2026학년도 공학계(B형)·자유전공학부(C형) 공통	18
문항 1 (자유전공학부 1번 공통)	18
문항 2 (자유전공학부 2번 공통)	20
문항 3 (자유전공학부 3번 공통)	22
2026학년도 자유전공학부(C형)	24
문항 4	24
문항 5	26
2027학년도 모의논술	28
문항 1	28
문항 2	30
문항 3	32
문항 4	34

2026학년도 인문사회계(A형)

문항 1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옆구리에서 아까부터
무언가 꿈지락거리고 있었다.
내려다보니 작은 할머니였다.
만원 전동차에서 내리려고
혼자 헛되이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승객들은 빈틈없이 할머니를 에워싸고
높고 튼튼한 벽이 되어 있었다.
할머니가 아무리 중얼거리며 떠밀어도
벽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할머니는 있는 힘을 다하였으나
태아의 발가락처럼 꿈틀거릴 뿐이었다.
전동차가 멈추고 문이 열리고 닫혔지만
벽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
할머니가 필사적으로 꿈틀거리는 동안
꿈틀거릴수록 점점 작아지는 동안
승객들은 빈틈을 더 세게 조이며
더욱 견고한 벽이 되고 있었다.

- 김기택, 「벽」

[문항 1] <보기>는 위의 시를 분석한 글이다. <보기>의 ①, ②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말을 위의 시에서 찾아 각각 한 단어로 쓰시오. [10점]

<보기>

위의 시는 승객들에게 에워싸여 전동차에서 내리지 못하는 (①)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형상화하고 있다. 그리고 (②)이라는/라는 시어를 반복하여 승객들의 행동에 변화가 없음을 강조하며, 타인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없는 현대인의 이기주의적인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

① _____, ② _____

예시 답안

정답

① 할머니 ② 벽

해설

이 작품은 화자가 일상적 공간에 있는 특정 대상을 관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창작된 작품이다. 화자가 관찰하는 대상은 모두 소외된 인물로 화자는 이들과 직접적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있지 않지만, 이들을 관찰한 내용이나 이로 인해 촉발된 화자의 행위를 통해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할머니를 에워싸고 있는 승객들로 인해 전동차에서 내리지 못하는 할머니의 고통스런 상황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 ‘벽’이라는 시어를 반복하여 할머니를 에워싼 승객들의 행동에 변화가 없음을 강조하며, 타인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없는 현대인의 이기주의적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한 단어로 쓴다면, ①번 답은 ‘할머니’고 ②번 답은 ‘벽’이다.

■ 채점 기준

- ①, ② 각 항목이 정확하게 기술된 경우만 정답으로 처리함
- ①, ② 순서가 바뀐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함
- 정답 이외에 다른 답을 추가로 기술한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함
- 부정확한 글자나 문장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함
- 2개 모두가 정답이면 10점
- 1개가 정답이면 5점

문항 2~3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수오재(守吾齋)’라는 것은 큰형님이 그 집에 붙인 이름이다. 나는 처음에 의심하며 말하기를, “사물이 나와 굳게 맺어져 있어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것으로는 나[吾]보다 절실한 것이 없으니, 비록 지키지 않은들 어디로 갈 것인가. 이상한 이름이다.”라고 하였다.

내가 장기로 귀양 온 이후 홀로 지내면서 정밀하게 생각해 보았더니, 하루는 갑자기 이러한 의문점에 대해 해답을 얻을 수 있었다. 나는 벌떡 일어나서 다음과 같이 스스로 말하였다.

“대체로 천하의 만물이란 모두 지킬 수는 없고, 오직 나[吾]만은 지켜야 하는 것이다. …(중략)…”

[A]

나는 잘못 간직했다가 나[吾]를 잃은 자이다. 어렸을 때, 과거(科擧)가 좋게 보여서 과거에 빠져 있었던 것이 10년이였다. 마침내 처지가 바뀌어 조정(朝廷)에 나아가 검은 사모에 비단 도포를 입고, 미친 듯이 대낮에 큰길을 뛰어다녔는데, 이와 같이 12년을 하였다. 또 처지가 바뀌어 한강을 건너고 조령을 넘어, 친척과 분묘를 버리고 곧바로 아득한 바닷가의 대나무 숲에 달려와서야 멈추게 되었다. 이때에는 나[吾]도 땀이 흐르고 두려워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면서, 나의 발뒤꿈치를 따라 함께 이곳에 오게 되었다.

나는 나[吾]에게 말하기를,

“자네는 무엇 때문에 여기에 왔는가? 여우나 도깨비에게 홀려서 끌려온 것인가? 아니면 해신(海神)이 부른 것인가? 자네의 가정과 고향이 모두 초천(苕川)에 있는데, 어찌 그 본고장으로 돌아가지 않는가?”라고 하였다. 끝끝내 나[吾]라는 것은 멍한 채로 움직이지 않으며 돌아갈 줄을 몰랐다. 그 얼굴빛을 보니 마치 얽매인 곳이 있어서 돌아가고자 하나 돌아가지 못하는 듯하였다. 마침내 붙잡아서 함께 이곳에 머물렀다. 이때 나의 둘째 형님 좌랑공께서도 그의 나[吾]를 잃고 나를 좇아 남해 지방으로 왔는데, 역시 나[吾]를 붙잡아서 함께 그곳에 머물렀다. 유독 나의 큰형님만이 그의 나[吾]를 잃지 않고 편안히 단정하게 수오재(守吾齋)에 앉아 계시니, 어찌 본디부터 지키는 것이 있어 나[吾]를 잃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큰형님께서 그의 거실에 이름 붙인 까닭일 것이다. 큰형님께서서는 항상 말하시기를,

“아버님께서 태현(太玄)*이라고 자(字)를 지어주셔서, 나는 오로지 나의 태현을 지키려고 하여, 이것으로써 나의 거실에 이름을 붙였다.”라고 하셨다. 이는 그 이름 지은 뜻을 말씀하신 것이다.

[B]

맹자가, “무엇을 지키는 것이 큰일인가? 자신을 지키는 것이 큰일이다.”라고 하였으니, 그 말씀이 진실하다. 드디어 나 스스로 말한 것을 써서 큰형님께 보이고 수오재(守吾齋)의 기문(記文)으로 삼는다.

- 정약용, 「수오재기」

* 태현: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의 본질’을 뜻함

(나)

나와 같이 징역살이를 한 노인 목수 한 분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그 노인이 내게 무얼 설명하면서 땅바닥에 집을 그렸습니다. 그 그림에서 내가 받은 충격은 잊을 수 없습니다. 집을 그리는 순서가 판이하였기 때문입니다. 지붕부터 그리는 우리들의 순서와는 거꾸로였습니다. 먼저 주춧돌을 그린 다음 기둥·도리·들보·서까래·지붕의 순서로 그렸습니다. 그가 집을 그리는 순서는 집을 짓는 순서였습니다. 일하는 사람의 그림이었습니다. 세상에 지붕부터 지을 수 있는 집은 없습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지붕부터 그려온 나의 무심함이 부끄러웠습니다. 나의 서가(書架)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낭패감이었습니다. 나는 지금도 책을 읽다가 ‘건축’이라는 단어를 만나면 한동안 그 노인의 얼굴을 상기합니다.

차치리라는 사람이 어느 날 장에 신발을 사러 가기 위하여 발의 크기를 본으로 뺐습니다. 이를테면 종이 위에 발을 올려놓고 발의 윤곽을 그렸습니다. 한자로 그것을 탁(度)이라 합니다. 그러나 막상 그가 장에 갈 때는 깜박 잊고 탁을 집에 두고 갔습니다. 신발 가게 앞에 와서야 탁을 집에다 두고 온 것을 깨닫고는 탁을 가지러 집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제법 먼 길을 되돌아가서 탁을 가지고 다시 장에 도착하였을 때는 이미 장이 파하고 난 뒤였습니다.

그 사연을 듣고는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탁을 가지러 집에까지 갈 필요가 어디 있소. 당신의 발로 신어 보면 될 일이 아니오.”

차치리가 대답했습니다.

“아무려면 발이 탁만큼 정확하겠습니까?”

[C] 주춧돌부터 집을 그리던 그 노인이 발로 신어 보고 신발을 사는 사람이라면 나는 탁을 가지러 집으로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탁과 족, 교실과 공장, 종이와 망치, 의상과 사람, 화폐와 물건, 임금과 노동력, 이론과 실천…….

이러한 것들이 뒤바뀌어 있는 우리의 사고를 다시 한번 반성케 하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영복, 「새 출발점에 선 당신에게」

[문항 2] [A]에서 ‘나[틈]’은 과거 자신의 삶을 되새기며 반성하고 있다. 이처럼 현재의 나가 반성하고 있는 ‘과거의 모습을 보여주는 자신’을 [C]에서는 무엇에 비유하고 있는지 5어절로 찾아 쓰시오. [10점]

[문항 3] [제시문] (가), (나)를 읽고 두 물음에 답하시오. [10점]

- ① ‘수오(守吾)’의 의미에 해당하는 가장 적절한 표현을 [B]에서 찾아 3어절로 쓰시오.
- ② 집을 그리기 시작할 때, ‘나’와 ‘목수’가 가장 큰 순서의 차이를 보였던 집의 구성 요소 두 가지를 (나)에서 찾아 모두 쓰시오.

① _____

② _____, _____

■ 예시 답안

[문항 2] 정답

탁을 가지러 집으로 가는 사람 / 탁을 가지러 집으로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해설

제시문 (가)는 정약용의 ‘수오재기’라는 작품으로, ‘수오재’는 ‘나를 지키는 집’이라는 뜻이다. ‘수오재’라는 집의 이름을 통해 작가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깨달은 바를 기록하고 있다. 작가는 자신이 벼슬길에 나아가면서 나를 잃어버린 채 살아왔음을 반성하고, 본래 나[吾]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임을 깨닫게 된다.

제시문 (나)는 신영복의 ‘새 출발점에 선 당신에게’라는 작품으로 본질적인 것과 본질이 아닌 것을 대비시켜 본질이 아닌 것에 집중했던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있다. 제시문에서 주춧돌부터 그림을 그리는 목수를 ‘발로 신어 보고 신발을 사는 사람’으로 비유했다면, 자신은 ‘차치리’라는 사람처럼 ‘탁을 가지러 집으로 가는 사람’으로 비유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나가 반성하고 있는 ‘과거의 모습을 보여주는 자신’을 [C]에서 5어절로 찾는다면, ‘탁을 가지러 집으로 가는 사람’이다.

[문항 3] 정답

- ① 자신을 지키는 것 / 자신을 지키는 것이
- ② 주춧돌, 지붕

해설

제시문 (가)는 글쓴이가 큰형님의 서재 ‘수오재’라는 이름이 지닌 의미를 탐구하고 그에 비추어 자신의 삶을 반성하면서 얻은 깨달음을 드러낸 수필이다. ‘수오재’는 ‘나를 지키는 집’이라는 뜻으로, ‘수오’는 ‘나를 지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글쓴이는 자신이 벼슬길에 나아가면서 나[吾]를 잃어버린 채 살아왔음을 반성하고, 큰형님이 서재에 이름을 붙인 의도를 추측하면서 그 삶의 자세를 본받고자 하는 다짐을 드러낸다. [B]에서 맹자의 ‘자신을 지키는 것이 큰일이다’라는 말의 의미는 ‘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이는 곧 ‘수오’에 해당한다. 따라서 3어절은 ‘자신을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제시문] (나)는 본질적인 것과 본질이 아닌 것을 대비시켜 본질이 아닌 것에 집중했던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있다. 목수는 집을 그릴 때, 집을 그리는 순서를 주춧돌을 먼저 그리고 마지막에 지붕을 그림으로써 실제 생활에 토대를 둔 사람의 그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작가는 집을 그릴 때, 지붕부터 그림으로써 실제로 기초하지 않은 자신을 반성하고 있다. 따라서 집을 그리기 시작할 때, 나와 목수가 가장 큰 순서의 차이를 보였던 집의 구성 요소 두 가지는 ‘주춧돌’과 ‘지붕’이다.

■ 채점 기준

[문항 2]

- 정답 이외에 다른 답을 추가로 기술한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함
 - 부정확한 글자나 문장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함
- ‘탁을 가지러 집으로 가는 사람’ 또는 ‘탁을 가지러 집으로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둘 다 정답으로 인정함.

[문항 3]

- ①, ② 각 항목이 정확하게 기술된 경우만 정답으로 처리함
- ①, ② 순서가 바뀐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함
- 정답 이외에 다른 답을 추가로 기술한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함
- 부정확한 글자나 문장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함
- 2개 모두가 정답이면 10점
- 1개가 정답이면 5점
- ① 자신을 지키는 것 / 자신을 지키는 것이: 둘 다 맞음
- ② 주춧돌, 지붕: 순서가 달라도 맞음

문항 4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공자는 ‘악(樂)’을 인격 완성을 위한 덕목이자 치세의 수단으로 보았다. 조선의 태조는 악을 바탕으로 왕도 정치를 실현하려고 하였는데, 이때 모범으로 삼은 것은 중국에서 궁중 의례에 사용하던 아악이었다. 세종 역시 왕도 정치에서 악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세종은 아악을 정비하여 신제아악(新制雅樂)을 만들었다. 그러나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조선풍의 악을 창제하고자 하였다. 그는 아악의 법도가 중국에서도 확정되지 못하였던 점을 근거로 중국의 아악을 무비판적으로 존송하는 이들을 비판하였다. 그리고 제사의 대상인 선조들이 주로 들었던 악은 민간에서 사용되는 향악이므로 궁중의 제례에서도 향악의 사용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그는 자주적인 악이 아악보다 인심과 풍속에 미치는 효용이 더 크다고 여기고 이러한 악을 통해 왕도 정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세종은 향악의 성격을 띤 조선풍의 신악(新樂)을 창제하였는데 이는 내용과 형식 면에서 신제아악과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 신악의 선포는 주체적인 악의 선언일 뿐 아니라, 의례와 악의 관계가 완전히 역전됨을 의미했다. 세종 이전에는 의례의 절차에 맞추어 악을 사용했는데, 세종이 신악의 사용을 천명하면서 의례의 절차를 신악에 맞추어 수정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례의 절차와 악을 조율시키는 것은 오랜 조정이 필요해서 세종 대에는 신악을 의례에 사용하지 못했다.

세조는 자주적인 악을 통해 왕도 정치를 실현하고자 한 세종의 뜻을 이루고자 노력하였다. 그는 악의 요체는 인심을 선량하게 하는 데 있다고 보고, 악을 통해 풍속을 개량하려 하였다. 그는 궁중 의례에 사용되는 악에 많은 관심을 가져서, 궁중 의례를 관장하는 관서의 관리를 임명할 때도 음률에 대한 이해도를 고려하였다. 또한 아악이 다른 악과 구별되는 특별한 악이 아니라는 시각에서 아악을 관장하는 관청과 향악을 관장하는 관청을 통합하여 운영하였다. 그는 재위 중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원구제에 신악을 사용하였다. 이는 하늘과 땅에 제사를 지낼 때 향악을 쓰지 않는다는 전대의 전통을 깬 것인데, 그는 제사를 마친 후 “선왕의 뜻이 드디어 이루어졌다.”라고 기뻐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후대에도 점차 확대되었다.

[문항 4] <보기>는 윗글을 읽은 독자가 기존에 자신이 알고 있던 지식을 새롭게 해석한 내용이다. <보기>의 ①, ②, ③에 들어갈 적절한 인물을 윗글에서 찾아 쓰시오. [10점]

<보기>

조선 초 문묘 제례악에는 주로 아악기가 사용되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향악기가 함께 사용되는 비중이 점차 늘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 윗글을 읽고 문묘 제례악에서 향악기의 사용 비중이 늘었던 것은 외래 악의 무분별한 수용으로 인한 악의 획일화를 우려하고 중화주의를 탈피하여 주체적인 악을 세우고자 신악을 창제한 (①)의 의지가 반영된 것임을 알 수 있었어. 물론 (②)은/는 중국의 궁중 제례와 조희 의식에 사용된 악을 왕도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모범으로 삼았기 때문에 주체적인 악을 새롭게 만들려 하지 않았던 것이겠지. 그러나 이렇게 악을 바탕으로 왕도 정치를 실현하려 했던 조선 지배층의 노력은 중국의 악을 한편으로는 계승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고 볼 수 있겠어. (③)가/이 원구제에 향악을 사용한 것 역시 자주적인 악을 통해 왕도 정치를 실현하고자 한 것이겠군.

① _____, ② _____, ③ _____

예시 답안

정답

① 세종 ② 태조(조선의 태조) ③ 세조

해설

공자는 ‘악(樂)’을 ‘인격 완성을 위한 덕목이자 치세의 수단’으로 보았는데, 조선의 태조의 생각 역시 이와 비슷하였다. 그러나 제시문을 보면 세종은 “조선풍의 악을 창제하고자 하였”고 “궁중의 제례에서도 향악의 사

용을 확대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세종은 “자주적인 악이 아악보다 인심과 풍속에 미치는 효용이 더 크다고 여기고 이러한 악을 통해 왕도 정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세종의 생각은 세조로 이어졌고, 마침내 “재위 중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원구제에 신악을 사용하였다.”라고 나온다. 신악은 “하늘과 땅에 제사를 지낼 때 향악을 쓰지 않는다는 전대의 전통을 깬 것”이라는 설명도 나오며 “이러한 경향은 후대에도 점차 확대되었다.”라고 나온다. 이를 통해 조선 시대에는 중국의 아악을 계승하면서도 점차 향악을 더 많이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보기>에 나오는 “문묘 제례악에서 향악기의 사용 비중이 늘었던 것”은 ‘신악’을 창제한 세종의 의지가 후대왕들에 의해 차츰 반영된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①의 정답은 ‘세종’이다.

“태조는 악을 바탕으로 왕도 정치를 실현하려고 하였는데, 이들이 모범으로 삼은 것은 중국에서 궁중 의례에 사용하던 아악이었다.”라는 제시문의 설명을 볼 때 건국 초기에 “중국의 궁중 제례와 조희 의식에 사용된 악을 왕도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모범으로 삼을 만한 악이라고 생각했”던 주체는 태조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②의 정답은 ‘태조’이다.

자주적인 악에 대한 세종의 생각은 세조로 이어졌고, 마침내 “재위 중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원구제에 신악을 사용하였다.”라고 나오므로 ③의 정답은 ‘세조’이다.

■ 채점 기준

- ①, ②, ③의 각 항목이 정확하게 기술된 경우만 정답으로 처리함
- ①, ②, ③의 순서가 바뀐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함
- 정답 이외에 다른 답을 추가로 기술한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함
- 부정확한 글자나 문장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함
- 3개 모두가 정답이면 10점
- 2개가 정답이면 7점
- 1개가 정답이면 4점
- ②는 ‘조선의 태조’도 인정함

문항 5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서란 글이나 기호 따위로 사람의 의사, 관념 또는 사상을 나타낸 것을 뜻한다. 이러한 문서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범행 방법에 따라 위조, 변조, 허위 작성으로 나뉜다. 위조는 문서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이 무단으로 문서를 만들어 내는 행위를 뜻하고, 변조는 문서 변경 권한이 없는 사람이 이미 작성된 문서의 일부 내용을 무단으로 변경하는 행위를 뜻한다. 이에 비해 허위 작성은 문서 작성 권한이 있는 사람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처벌 대상인 범죄 행위에 해당하려면 위조, 변조, 허위 작성 중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한 행위를 의도적으로 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이러한 특정한 행위를 통해 만들어질 문서를 사용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것도 인정되어야 한다.

문서는 그 작성 주체의 성질에 따라 공문서와 사문서로 나뉜다. 국가 지방 자치 단체 등의 공적 주체에게 작성 권한이 주어진 문서를 공문서라고 하고, 그 밖의 단체나 개인에게 작성 권한이 주어진 문서를 사문서라고 한다. 공문서에 대해서는 위조, 변조, 허위 작성이 모두 처벌되는 데 비해, 사문서에 대해서는 위조, 변조만 처벌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차이는 공문서와는 달리 사문서는 허위로 작성되더라도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한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문서로서 따로 법률로 규정된 것에 대해서는 허위 작성도 처벌된다. 의사가 작성하는 진단서가 그 예이다.

[문항 5] <보기>는 위글의 내용 일부를 정리한 것이다. <보기>의 ①, ②, ③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말을 위글에서 찾아 쓰시오. [10점]

<보기>

문서 관련 범죄는 행위 방법에 따라 위조, 변조, 허위 작성으로 나뉘는데, 이러한 특정 행위가 범죄로 성립하려면 이러한 행위를 통해 만들어질 문서를 (①)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것도 인정되어야 한다. 사문서는 문서 변경 권한이 없는 자가 작성된 문서의 일부 내용을 무단으로 바꾼 (②)와/과 문서 작성 권한이 없는 자가 문서를 만들어 낸 (③)만 처벌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경우 따로 법률로 규정된 것에 대해서는 허위 작성도 처벌된다.

① _____, ② _____, ③ _____

예시 답안

정답

① 사용 ② 변조 ③ 위조

해설

제시문에서는 문서에 대한 범죄 행위의 유형, 작성 주체의 성질에 따른 문서의 유형을 소개하고 있다. 제시문에서는 “처벌 대상인 범죄 행위에 해당하려면 위조, 변조, 허위 작성 중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한 행위를 의도적으로 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이러한 특정한 행위를 통해 만들어질 문서를 사용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것도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면 ①의 정답은 ‘사용’이다.

②와 ③은 사문서에 대해서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 행위의 유형과 그에 해당하는 개념에 관한 것이다. 제시문을 보면 “사문서에 대해서는 위조, 변조만 처벌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되어 있다. 이에 해당하는 위조와 변조에 대해 제시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위조는 문서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이 무단으로 문서를 만들어 내는 행위를 뜻하고, 변조는 문서 변경 권한이 없는 사람이 이미 작성된 문서의 일부 내용을 무단으로 변경하는 행위를 뜻한다.”라는 것이다. 이에 근거하면 ②의 정답은 ‘변조’이고, ③의 정답은 ‘위조’이다.

■ 채점 기준

- ①, ②, ③의 각 항목이 정확하게 기술된 경우만 정답으로 처리함
- ①, ②, ③의 순서가 바뀐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함
- 정답 이외에 다른 답을 추가로 기술한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함
- 부정확한 글자나 문장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함
- 3개 모두가 정답이면 10점
- 2개가 정답이면 7점
- 1개가 정답이면 4점

문항 6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독서는 텍스트, 독자 그리고 독서 맥락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이자 독자가 능동적으로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이다. 독서는 의미 구성의 중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 텍스트 중심 독서, 독자 중심 독서, 사회적 상호작용 중심 독서로 나눌 수 있다.

텍스트 중심 독서는 의미가 텍스트에 내재하므로 독자가 텍스트에 담겨 있는 객관적 의미를 발견해야 한다고 보는 관점이다. 이러한 관점은 상황이나 맥락의 영향보다는 텍스트 내의 의미 자체를 중시한다. 텍스트 중심 독서는 비교적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얻어야 하는 독서 활동에 유의미하다. 텍스트 중심의 독서 방법은 텍스트 관련 요소를 중심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필자의 의도를 중심으로 의미를 파악하는 독서이다. 텍스트를 쓴 필자의 의도나 사상을 알고 이를 활용하여 필자가 의도한 텍스트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다. 둘째, 텍스트 내용을 구성하는 요소를 중심으로 하는 독서이다. 가령 서사 텍스트라면 인물, 사건, 배경, 구성, 시점 등을 알고 이를 활용하여 의미를 발견하는 방법이다. 셋째, 텍스트 내용 구조를 중심으로 하는 독서로 인과, 비교, 나열 등의 텍스트 구조를 활용하여 의미를 파악하는 방법이다.

텍스트 중심 독서는 독자가 주어진 글의 의미를 그대로 받아들여 머릿속에 저장한다고 보지만, 독자 중심 독서는 의미가 독자의 주관적인 경험에 따라 구성된다고 본다. 즉 텍스트의 의미는 개인의 경험이나 지식을 바탕으로 주체적으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독자 중심 독서에서는 독자의 배경지식 활성화, 이어질 내용 예측하기, 스스로 질문하고 답하기 등과 같은 개인의 내적 사고 활동을 강조한다.

사회적 상호작용 중심 독서는 사회 구성주의에 바탕을 둔 이론으로 독자 중심 독서 이론을 비판적으로 발전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 구성주의는 지식이란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의 대화를 통해서 구성된 사회적으로 정당화된 신념이라고 본다. 독자들은 공동체에서 대화를 통해 여러 가지 지식과 의미 구성 방식을 습득하고,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과의 대화를 통해 깊이 있는 이해에 도달하게 된다고 본다. 독자는 글을 읽으면서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가며, 한편으로는 글에 대해 반응함으로써 사회에 영향을 준다.

[문항 6] <보기>의 ㉠, ㉡, ㉢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뒷글의 ㉣에서 찾아 쓰시오. [10점]

<보기>

개인의 내적 사고 활동이 강조되는 (㉠) 중심 독서는 독자가 개인의 주관적 경험이나 지식을 토대로 독서의 의미를 구성하고, (㉡) 중심 독서는 독자가 글에 내재한 객관적인 의미를 발견하는 것을 중시한다. 한편, (㉢) 중심 독서는 독자가 공동체와의 대화를 통해 깊이 있는 이해에 도달하고 자신이 읽은 글에 반응함으로써 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각각의 관점은 독서를 통한 의미 구성 과정을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 보게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_____, ㉡ _____, ㉢ _____

예시 답안

정답

㉠ 독자 ㉡ 텍스트 ㉢ 사회적 상호작용

해설

제시문은 독서를 통한 의미 구성의 과정을 설명한 것이다. 제시문에 따르면 “독자 중심 독서는 의미가 독자의 주관적인 경험에 따라 구성”되며, “개인의 내적 사고 활동을 강조한다.”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의 정답은 ‘독자’이다.

제시문을 보면 “텍스트 중심 독서는 의미가 텍스트에 내재하므로 독자가 텍스트에 담겨 있는 객관적인 의미를 발견해야 한다고 보는 관점”이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의 정답은 ‘텍스트’이다.

제시문에 따르면 “사회적 상호작용 중심 독서는 독자들이 공동체에서 대화를 통해 여러 가지 지식과 의미 구성 방식을 습득하고,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과의 대화를 통해 깊이 있는 이해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다. 또한 “독자는 글을 읽으면서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가며, 한편으로는 글에 대해 반응함으로써 사회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다. 따라서 ③의 정답은 ‘사회적 상호작용’이다.

■ 채점 기준

- ①, ②, ③의 각 항목이 정확하게 기술된 경우만 정답으로 처리함
- ①, ②, ③의 순서가 바뀐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함
- 정답 이외에 다른 답을 추가로 기술한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함
- 부정확한 글자나 문장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함
- 3개 모두가 정답이면 10점
- 2개가 정답이면 7점
- 1개가 정답이면 4점

문항 7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심폐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인체 내부의 여러 조직 및 기관으로 산소가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 심정지 상태일 때 심폐 소생술을 실시하거나, 자가 호흡을 하지 못할 때 인공호흡기를 활용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심장이나 폐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면 응급조치나 단순한 치료만으로는 심폐 기능을 회복시킬 수 없다. 이처럼 문제가 되는 부분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동안 환자의 심폐 기능을 대신하는 인공 장치를 에크모라고 한다.

에크모는 심장과 폐를 대신하여 혈액에 산소를 공급하고 이산화 탄소를 제거하여 치료와 회복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게 해준다. 에크모는 환자의 혈액을 몸 밖으로 빼낸 후 체외에서 가스 교환을 하고 다시 환자의 몸으로 주입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에크모는 혈액 도관, 펌프, 산화기로 구성되어 있다. 혈액 도관은 몸에 삽입하는 튜브 형태의 관으로 혈액을 빼내거나 다시 넣는 통로 역할을 한다. 펌프는 혈액 도관으로 혈액이 잘 흐르게 하는 역할을 한다. 산화기는 혈액에 산소를 주입하고 이산화 탄소를 제거하는 기능을 하는 장치로 에크모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에크모는 혈액을 빼고 다시 넣는 위치에 따라서 VA 방식과 VV 방식으로 나뉜다. VA 방식의 에크모는 대정맥에서 뽑은 혈액을, 산화기를 거치게 한 후 대동맥으로 넣어 주는 방식으로 환자의 심장과 폐를 대신한다. 새롭게 산소를 공급받은 혈액이 폐정맥을 통해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폐순환이라고 하며, 폐순환을 거친 혈액이 대동맥을 따라 온몸을 순환하며 신체의 각 조직에 산소를 공급한 후 다시 체내에 있던 이산화 탄소를 가지고 대정맥으로 돌아오는 것을 체순환이라고 한다. VA 방식은 체순환을 끝낸 혈액이 심장과 폐를 거치지 않고 다시 체순환을 하도록 한 것이다. 몸 밖으로 빼낸 혈액을 대동맥으로 넣어 줄 때는 펌프를 활용하는데, 펌프는 심장의 기능을 대신하여 혈액의 흐름이 계속되도록 하여 체순환이 원활히 이루어지게 한다.

VV 방식의 에크모는 대정맥에서 혈액을 빼내어 산화기를 거치게 한 후 다시 대정맥 내에 넣어 준다. 이 방식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심장이 반드시 제 기능을 하고 있어야 한다. 심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산화기를 거친 혈액을 다시 대정맥으로 넣어 주면 폐순환을 하게 되고 폐포에서 혈액에 있던 이산화 탄소를 산소로 교환하지 못하더라도 산소를 품은 혈액을 온몸으로 공급하는 것이 가능하다.

[문항 7] <보기>는 위글의 내용 일부를 정리한 것이다. <보기>의 ①, ②, ③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단어를 위글에서 찾아 쓰시오. [10점]

<보기>

에크모는 체내의 (①)에서 뽑은 혈액을 다시 같은 곳으로 넣는 방식과, 체내의 (②)에서 뽑은 혈액을 체내의 (③)으로/로 넣는 방식으로 나뉜다. 전자는 폐의 기능만을 대신하여 온몸에서 혈액의 흐름이 계속되도록 하는 것이며, 후자는 심장과 폐의 기능을 모두 대신하여 온몸에서 혈액의 흐름이 계속되도록 하는 것이다.

① _____, ② _____, ③ _____

예시 답안

정답

① 대정맥 ② 대정맥 ③ 대동맥

해설

제시문에 의하면 에크모는 심폐 기능에 문제가 있어 인체 내부의 여러 조직 및 기관으로 산소가 전달되지 못할 때 사용하는 인공 장치이다. 에크모는 혈액을 빼고 넣는 위치에 따라서 VA 방식과 VV 방식으로 나뉜다. 두 방식은 모두 대정맥에서 혈액을 빼내어 산소를 주입하고 이산화 탄소를 제거한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VA 방식은 빼낸 혈액을 대동맥에 주입하고, VV 방식은 빼낸 혈액을 대정맥에 주입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VA 방식은 폐순환과 체순환을 모두 에크모가 대신해 주지만, VV 방식은 심장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폐순환만을 대신해 준다. VA 방식과 VV 방식의 이러한 차이를 이해할 수 있어야 주어진 문제의 정답을 추론할 수 있다.

<보기>의 첫 문장에는 ‘①’에서 뽑은 혈액을 다시 같은 곳으로 넣는 방식의 에크모가 나온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전자)은 “폐의 기능만을 대신하여 온몸에서 혈액의 흐름이 계속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는 VV 방식이다. 제시문을 보면 “VV 방식의 에크모는 대정맥에서 혈액을 빼내어 산화기를 거치게 한 후 다시 대정맥 내에 넣어 준다.”라고 나온다. 따라서 ①의 정답은 ‘대정맥’이다.

<보기>에서 후자의 방식은 “심장과 폐의 기능을 모두 대신하여 온몸에서 혈액의 흐름이 계속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나온다. 제시문에 “VA 방식은 체순환을 끝낸 혈액이 심장과 폐를 거치지 않고 다시 체순환을 하도록 한 것이다.”라고 나오므로 <보기>의 후자의 방식은 VA 방식이다. 제시문을 보면 “VA 방식의 에크모는 대정맥에서 뽑은 혈액을, 산화기를 거치게 한 후 대동맥으로 넣어 주는 방식”이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②의 정답은 ‘대정맥’이며 ③의 정답은 ‘대동맥’이다.

■ 채점 기준

- ①, ②, ③의 각 항목이 정확하게 기술된 경우만 정답으로 처리함
- ①, ②, ③의 순서가 바뀐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함
- 정답 이외에 다른 답을 추가로 기술한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함
- 부정확한 글자나 문장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함
- 3개 모두가 정답이면 10점
- 2개가 정답이면 7점
- 1개가 정답이면 4점

문항 8

[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조석은 지구의 해수면이 높아졌다가 낮아지는 주기적인 운동이고, 조류는 조석으로 인한 해수의 수평 방향의 흐름이다. 조석을 설명할 때 해수면의 수위가 가장 낮은 때를 저조라 하고, 가장 높은 때를 고조라 하며, 연속된 저조와 고조의 높이차를 조차라 한다. 조석을 일으키는 힘을 기조력이라고 하며, 이 힘은 지구상의 임의의 점에 작용하는 만유인력과 원심력의 합력이다. 달과 태양은 지구의 기조력에 영향을 주지만 달이 지구와 더 가까워서 달에 의한 기조력이 태양에 의한 것보다 약 두 배 강하다.

해수면의 높이 변화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조차가 5미터 이상이면서, 바다가 육지 속으로 들어온 지형인 만(灣)에서는 조력 발전을 할 수 있다. 조력 발전은 만의 입구에 댐을 설치해 저수지를 만든 후 저수지 안쪽 물인 내해와 밖의 물인 외해의 수위 차로 인한 낙차로 터빈을 회전시켜 전기를 생산한다. 해수는 댐의 수문을 통해 이동하는데, 터빈은 발전 수문이라 불리는 일부 수문에 설치한다. 전기를 생산할 때는 터빈을 지나는 유속을 높이기 위해 발전 수문만 개방하고, 발전 이외의 목적으로 해수를 이동시킬 때는 모든 수문을 개방한다.

이러한 발전 방식 중에서 창조식 방식은 저조 때 수문을 개방하여 저조 수위에 내해를 맞춘 후 수문을 닫고 대기하다가, 고조 때에 발전을 하고 낙차가 줄어들면 수문을 닫고 저조를 기다리는 작동 주기를 갖는다. 낙조식 방식은 고조 때 수문을 개방하여 고조 수위에 내해를 맞춘 후 수문을 닫고 기다렸다가, 저조 때에 발전을 하고 낙차가 줄어들면 수문을 닫고 고조를 기다리는 일련의 과정이 반복된다.

8. <보기>는 윗글에 나오는 수문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조력 발전의 작동 주기를 네 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한 것이다. <보기>의 ①, ②, ③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윗글에서 찾아 쓰시오. [10점]

보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모든 수문이 열림	→	모든 수문이 닫힘	→	일부 수문이 열림	→	모든 수문이 닫힘

a. (①) 방식은 ‘1단계’에서 ‘2단계’ 사이일 때 물이 외해에서 내해로 이동하지만, ‘3단계’에서 ‘4단계’ 사이일 때는 물이 내해에서 외해로 이동한다.

b. (②) 방식은 ‘1단계’에서 ‘2단계’ 사이일 때 물이 내해에서 외해로 이동하지만, ‘3단계’에서 ‘4단계’ 사이일 때는 물이 외해에서 내해로 이동한다.

c. ‘3단계’에서 열리는 ‘일부 수문’은 ‘터빈’이 설치되어 있어 (③) 수문이라고 한다.

예시 답안

정답

① 낙조식 ② 창조식 ③ 발전

풀이

제시문에서 “낙조식 방식은 고조 때 수문을 개방하여 고조 수위에 내해를 맞춘 후 수문을 닫고 기다렸다가, 저조 때에 발전을 하고 낙차가 줄어들면 수문을 닫고 고조를 기다리는 일련의 과정이 반복된다.”라고 했다. 그러므로 낙조식 방식은 <보기>의 ‘1단계’에서 ‘2단계’ 사이일 때 물이 외해에서 내해로 이동하지만, ‘3

단계’에서 ‘4단계’ 사이일 때는 물이 내해에서 외해로 이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①의 정답은 ‘낙조식’이다.

그리고 제시문에서 “창조식 방식은 저조 때 수문을 개방하여 저조 수위에 내해를 맞춘 후 수문을 닫고 대기하다가, 고조 때에 발전을 하고 낙차가 줄어들면 수문을 닫고 저조를 기다리는 작동 주기를 갖는다.”라고 했다. 그러므로 창조식 방식은 <보기>의 ‘1단계’에서 ‘2단계’ 사이일 때 물이 내해에서 외해로 이동하고, ‘3단계’에서 ‘4단계’ 사이일 때는 물이 외해에서 내해로 이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②의 정답은 ‘창조식’이다.

제시문에 의하면 “터빈은 발전 수문이라 불리는 일부 수문에 설치한다. 전기를 생산할 때는 터빈을 지나 는 유속을 높이기 위해 발전 수문만 개방하고, 발전 이외의 목적으로 해수를 이동시킬 때는 모든 수문을 개방 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를 근거로 <보기>의 ‘3단계’가 ‘발전 수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③의 정답은 ‘발전’이다.

■ 채점 기준

- ①, ②, ③의 각 항목이 정확하게 기술된 경우만 정답으로 처리함
- ①, ②, ③의 순서가 바뀐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함
- 정답 이외에 다른 답을 추가로 기술한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함
- 부정확한 글자나 문장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함
- 3개 모두가 정답이면 10점
- 2개가 정답이면 7점
- 1개가 정답이면 4점

2026학년도

공학계(B형)·자유전공학부(C형) 공통

문항 1 (자유전공학부 1번 공통)

[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
육첩방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 볼까.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보내 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

생각해 보면 어린 때 동무를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A]

[B]

- 윤동주, 「쉽게 씌어진 시」

1. <보기>의 ①, ②, ③에 해당하는 적절한 말을 위의 시에서 찾아 쓰시오. [10점]

보기

- ① [A]에서 화자가 처한 어두운 현실을 드러내는 시간적 배경이 되는 행의 첫 어절
- ② [A]에서 화자의 암울한 심정이 나타나는 공간적 배경이 되는 행의 첫 어절
- ③ [B]에서 이상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가 화해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나타나는 연의 첫 어절

예시 답안

정답

- ① 창밖에 ② 육첩방은 ③ 나는

풀이

위의 시는 일제 강점기에 쓰여진 윤동주의 「쉽게 씌어진 시」로 화자의 현실 인식과 자아 성찰적 태도가 드러나 있다. ‘밤비’는 화자가 처한 어두운 현실을 드러내는 시간적 배경에 해당한다. 따라서 ‘밤비’가 들어 있는 행은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이기 때문에 이 행의 첫 어절은 ‘창밖에’다. 그리고 ‘육첩방’은 일본 다다미방으로 시인이 일본 유학시절 머물던 작은 공간으로, ‘남의 나라’라고 표현함으로써 화자의 암울한 심정이 나타나는 공간적 배경이 된다. 따라서 ‘육첩방’이 들어 있는 행은 ‘육첩방은 남의 나라’이기 때문에 첫 어절은 ‘육첩방은’이다. 마지막으로 이상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가 화해하는 구체적인 행위는 ‘악수’다. 따라서 ‘악수’가 들어 있는 연은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이기 때문에 연의 첫 어절은 ‘나는’이다.

■ 채점 기준

- ①, ②, ③ 각 항목이 정확하게 기술된 경우만 정답으로 처리함
- ①, ②, ③ 순서가 바뀐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함
- 정답 이외에 다른 답을 추가로 기술한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함
- 부정확한 글자나 문장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함
- 3개 모두가 정답이면 10점
- 2개가 정답이면 7점
- 1개가 정답이면 4점
- ②번 답은 어절을 써야 하기 때문에 ‘육첩방’만을 쓸 경우는 맞지 않음

문항 2 (자유전공학부 2번 공통)

[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일탈은 대개 한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회 규범이나 행위 양식에 어긋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런데 어디까지를 일탈로 볼 것인가 하는 점은 분명하지 않다. 동일한 행위라도 사회적 규범이나 행위 양식에 따라 일탈로 여겨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일탈 가운데 법에 따라 공식적으로 국가 강제력이 가해지는 행위를 범죄라고 하는데, 범죄에 관한 규정 역시 가변적이다.

일탈을 설명하기 위한 초기의 시도들은 주로 생물학적 이론에 근거하여, 일탈 중에 특히 범죄와 관련하여 설명한 것이 많다. 더그데일은 가계도 연구를 통해 유전 인자의 영향을 밝혀 범죄 성향을 설명하려고 하였고, 롬브로소는 두개골의 모양에 따라 범죄 유형을 판별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인과 관계가 불분명하고 사례가 불충분하다고 오늘날에는 평가받고 있다.

이후 일탈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사회학적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이 대표적이다. 아노미는 무규범 상태를 일컫는 말이다. 급격한 사회 변동으로 개인들의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사회 규범이 사라지는 혼돈 상태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무규범 상태가 바로 아노미이다. 뒤르켐은 다양한 규범들이 공존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는 아노미가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지적하면서도 아노미는 사회 전체를 불안정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의 가치와 목표를 상실하게 하여 일탈의 원인이 된다고 하였다.

한편, 머튼은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간의 괴리 상태를 아노미라고 정의하였다. 사회 구성원들이 추구하는 문화적 목표와 그 사회가 인정하는 제도적 수단 사이의 괴리로 인해 아노미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머튼은 아노미 상태에서 개인들이 적응하는 방식이 동조, 혁신, 의례주의, 도피주의, 반역 등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하였다.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을 모두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동조가 나타나며, 문화적 목표는 수용하되 제도적 수단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혁신이 나타난다. 의례주의는 문화적 목표는 거부하되 제도적 수단을 수용하는 경우에, 도피주의는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모두를 거부할 경우에 나타난다. 반역은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모두를 거부하고 나아가 새로운 목표와 수단을 찾고자 하는 경우에 나타난다. 머튼은 아노미 상태에서 개인의 적응 방식이 다른 것은 개인이 사회화 과정에서 형성한 자아, 인성, 가치관 등의 사회화 결과에 따른 것으로 보았다. 머튼의 이론은 일탈이 사회의 구조적 한계에서 기인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2. <보기>는 위글의 내용 일부를 정리한 것이다. <보기>의 ①, ②, ③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위글에서 찾아 쓰시오. [10점]

보기

아노미는 무규범 상태를 일컫는 말인데, (①)은/는 아노미가 사회 전체를 불안정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의 가치와 목표를 상실하게 하여 일탈의 원인이 된다고 보았다. 한편, 머튼은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간의 (②) 상태를 아노미라고 규정하고, 일탈이 사회의 구조적 한계에 의해 발생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는 아노미 상태에서 개인들이 적응하는 방식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그중에서 도피주의와 반역은 개인이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을 모두 (③)할 때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다고 보았다.

예시 답안

정답

① 뒤르켐 ② 괴리 ③ 거부

풀이

제시문에서는 일탈에 관한 여러 학자가 분석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제시문에 따르면 뒤르켐은 “아노미가 사회 전체를 불안정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의 가치와 목표를 상실하게 하여 일탈의 원인이 된다.”라고 보았다. 따라서 ①의 정답은 ‘뒤르켐’이다.

제시문에서 머튼은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간의 괴리 상태를 아노미라고 정의하고, 사회 구성원들이 추구하는 문화적 목표와 그 사회가 인정하는 제도적 수단 사이의 괴리로 인해 아노미가 일어난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②의 정답은 ‘괴리’이다.

또한, 머튼은 “아노미 상태에서 개인들이 적응하는 방식을 제시한 뒤에 도피주의는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모두를 거부할 경우에 나타나고,” “반역은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모두를 거부하고 나아가 새로운 목표와 수단을 찾고자 할 때 나타난다.”라고 보았다. 이에 근거하면 도피주의와 반역은 개인이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을 모두 거부할 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③의 정답은 ‘거부’이다.

■ 채점 기준

- ①, ②, ③의 각 항목이 정확하게 기술된 경우만 정답으로 처리함
- ①, ②, ③의 순서가 바뀐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함
- 정답 이외에 다른 답을 추가로 기술한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함
- 부정확한 글자나 문장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함
- 3개 모두가 정답이면 10점
- 2개가 정답이면 7점
- 1개가 정답이면 4점

문항 3 (자유전공학부 3번 공통)**[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에디슨 축음기는 원통의 표면에 소리를 저장하고 거기에 저장된 소리를 재생하는 기계로 수화 장치, 기록 장치, 재생 장치로 이루어져 있다. 수화 장치는 짧은 관으로, 한쪽 끝은 소리가 들어갈 수 있게 열려 있고 다른 쪽 끝은 매우 얇은 금속판으로 덮여 소리가 관으로 들어오면 금속판이 진동하게 되어 있다. 이 금속판의 중앙에는 작은 강철 핀이 바깥쪽으로 부착되어 있어서 금속판이 진동하면 함께 진동한다.

기록 장치를 구성하는 원통은 낫쇠로 만드는데 원통의 둥근 옆면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한 가닥의 V 자 모양의 홈이 나선 모양으로 파여 있다. 이 원통의 중앙을 관통하는 회전축은 수평으로 놓인 상태에서 양쪽 끝부분이 베어링에 의해 지탱된다. 원통의 V 자 홈에는 수화 장치의 강철 핀 끝이 근접해 있다. 회전축은 표면에 나선이 깎여 있고 나선 베어링에 끼워져 있어 회전축이 회전하면 축 방향으로 전진하게 되어 있다. 회전축의 한쪽 끝에는 핸들이 달려 있어서 그것을 돌리면 원통은 고정된 강철 핀 앞에서 회전하면서 축 방향으로 조금씩 움직인다. 부드럽고 탄성이 없는 금속인 주석으로 만든 얇은 박을 원통 위에 감아 주고 수화 장치의 강철 핀의 끝을 주석 박에 닿게 조정해 준 상태에서 수화 장치의 관에 말을 하면서 핸들을 일정한 속력으로 돌려 주면, 수화 장치의 강철 핀이 위아래로 진동하면서 원통의 V 자 홈을 따라서 주석 박의 표면에 깊이가 변하는 홈을 만든다. 이때 말소리에 따라서 각기 다른 형태의 홈이 주석 박에 새겨진다.

기록한 소리의 재생 장치는 원뿔 형태의 금속 나팔이 있는 곳으로 넓은 쪽은 열려 있고 좁은 쪽은 팽팽하게 펼쳐진 종이로 막혀 있다. 이 펼쳐진 종이 막의 중심에는 가벼운 용수철의 한쪽 끝이 수직으로 부착되어 있고 용수철의 반대쪽 끝에는 끝이 뾰족한 강철 핀이 달려 있다. 만약 강철 핀이 진동하면 그 진동이 용수철을 통해 종이 막으로 전달되어 종이 막이 진동하게 되어 있다. 소리를 재생하기 위해서는 원통을 되돌려서 녹음하기 전의 원래의 위치로 가져다 놓고 재생 장치의 강철 핀의 끝이 주석 박에 만들어진 홈의 첫 부분에 들어가게 한 후에 핸들을 돌리면 강철 핀이 새겨진 홈을 따라 움직이면서 진동을 용수철을 통해 종이 막으로 전달한다. 그러면 소리가 원뿔형 나팔로부터 나온다.

3. <보기>는 뒷글을 바탕으로 에디슨 축음기의 구조를 추론한 내용이다. <보기>의 ①, ②, ③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뒷글에서 찾아 각각 2음절로 쓰시오. [10점]

보기

- 회전축의 회전에 따라 조금씩 축 방향으로 이동하는 원통에 감긴 주석 박이 함께 회전하면서, 강철 핀 끝의 진동이 깊이가 다른 홈으로 새겨진 부분은 에디슨 축음기의 (①) 장치에 해당하겠군.
- 주석 박에 남겨진 홈이 회전하는 동안 홈의 끝에 닿아 있는 강철 핀이 용수철을 통해 종이 막으로 진동을 전달하는 부분은 에디슨 축음기의 (②) 장치에 해당하겠군.
- 금속판으로 소리를 받고 거기에서 유발되는 진동을 강철 핀을 통해 다른 장치로 전달하는 부분은 에디슨 축음기의 (③) 장치에 해당하겠군.

예시 답안**정답**

- ① 기록 ② 재생 ③ 수화

풀이

제시문에 의하면 에디슨 축음기는 수화 장치, 기록 장치, 재생 장치로 이루어져 있다. 수화 장치는 외부의 소리를 기계적으로 변환시키는 기능을 하며, 기록 장치는 기계적으로 변환된 정보를 기계 내부에 저장하는 기능을 하고, 재생 장치는 저장된 정보를 읽고 이를 다시 소리로 변환시켜 외부로 내보내는 기능을 한다.

기록 장치에 대한 제시문의 설명을 보면 “부드럽고 탄성이 없는 금속인 주석으로 만든 얇은 박을 원통 위에 감아 주고 수화 장치의 강철 핀의 끝을 주석 박에 닿게 조정해 준 상태에서 수화 장치의 관에 말을 하면서 핸들을 일정한 속력으로 돌려 주면, 수화 장치의 강철 핀이 위아래로 진동하면서 원통의 V 자 홈을 따라서 주석 박의 표면에 깊이가 변하는 홈을 만든다.”고 되어 있다. 이를 통해 <보기>에서 “원통에 감긴 주석 박을 함께 회전하면서 강철 핀 끝의 진동을 깊이가 다른 홈으로 새겨진 부분”은 기록 장치임을 추론할 수 있다. ‘깊이가 다른 홈을 새기는’ 것과 ‘깊이가 변하는 홈을 만드는’ 것이 같은 것임을 알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①의 정답은 ‘기록’이다.

재생 장치에 대한 제시문의 설명을 보면 “강철 핀이 진동하면 그 진동이 용수철을 통해 종이 막으로 전달 되어 종이 막이 진동하게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다. 이를 통해 <보기>에서 “주석 박에 남겨진 홈이 회전하는 동안 홈의 끝에 닿아 있는 강철 핀이 용수철을 통해 종이 막으로 진동을 전달하는 부분”은 재생 장치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②의 정답은 ‘재생’이다.

수화 장치에 대한 제시문의 설명을 보면 “매우 얇은 금속판으로 덮여 소리가 관으로 들어오면 금속판이 진동하게 되어 있다. 이 금속판의 중앙에는 작은 강철 핀이 바깥쪽으로 부착되어 있어서 금속판이 진동하면 함께 진동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기록 장치에 대한 설명을 보면 “수화 장치의 강철 핀이 위아래로 진동하면서 원통의 V 자 홈을 따라서 주석 박의 표면에 깊이가 변하는 홈을 만든다.”고 되어 있다. 이 두 내용을 종합하면 <보기>에 나오는 “금속판으로 소리를 받고 거기에서 유발되는 진동을 강철 핀을 통해 다른 장치로 전달하는 부분”은 수화 장치임을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③의 정답은 ‘수화’이다.

■ 채점 기준

- ①, ②, ③의 각 항목이 정확하게 기술된 경우만 정답으로 처리함
- ①, ②, ③의 순서가 바뀐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함
- 정답 이외에 다른 답을 추가로 기술한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함
- 부정확한 글자나 문장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함
- 3개 모두가 정답이면 10점
- 2개가 정답이면 7점
- 1개가 정답이면 4점

2026학년도 자유전공학부(C형)

문항 4

[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모든 언어권에서 놀이와 관련된 단어가 발견된다. 이는 놀이가 인간의 역사와 함께해 왔다는 것을 말해 준다. 헤라클레이토스가 놀이를 본격적인 철학의 주제로 삼은 이래로 플라톤, 칸트 등이 놀이에 대한 철학적 견해를 피력하였다. 이후에는 하위징아, 가다머 등의 현대 철학자들이 놀이에 대해 본격적으로 연구하였다.

놀이를 학술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최초의 학자는 하위징아이다. 그는 인간은 생물학적인 본능에 의해 단순히 노는 것이 아니라 논다는 사실을 이성적으로 사유하면서 놀이하는 존재이기에 동물과 구분된다고 하면서 인간을 ‘호모 루덴스(Homo Ludens)’, 즉 놀이하는 인간으로 칭하였다. 또한 그는 제1차 세계 대전과 제2차 세계 대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놀이가 전쟁이라는 비극적 참상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된다고 강조하였다. 놀이는 임무가 아닌 자발적 행위이며 매일 반복되는 업무가 아닌 비일상적 행위이기 때문에 인간이 노동에 길들여질수록 그 반대급부인 놀이가 절실해진다고 하였다.

하위징아가 놀이의 효용을 말하였다면 가다머는 놀이의 본질적 속성에 주목하였다. 우선 그는 전통 철학에서 놀이를 일종의 장난, 심심풀이, 기분 전환을 위한 여가 활동으로 간주하여 진지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는 것을 비판하였다. 그에 따르면 아이와 어른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놀이에 진지하게 몰입한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놀이에 진지함이 결여되어 있다고 평가하는 이유는 놀이를 특별한 관점, 즉 노동과 연관하여 보기 때문이다. 가다머는 이는 다분히 근대적 세계관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비판하면서 놀이는 몰입과 진지성을 유도하는 본질적 속성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놀이가 놀이하는 사람의 의식에 구속된 것이라고 이해하면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가다머가 지정한 놀이의 본질적 속성 중 하나는 왕복 운동이다. 이쪽과 저쪽을 오가는 왕복을 반복하는 것이 놀이하는 사람을 놀이의 영역으로 끌어들인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왕복 운동을 전제로 하는 놀이는 운동의 종점인 목표가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이쪽과 저쪽을 오가는 놀이가 몇 번 반복된다고 해서 놀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운동의 동력이 상실될 때 놀이가 끝난다는 것이다. 이때 운동의 동력이란 놀이 자체에서 나오는 힘으로 인간이 놀이를 선택하고 놀이에서의 수행 과제를 설정한다고 할지라도 놀이를 지속하고 끝내는 힘은 놀이 그 자체에 있다. 예를 들어, 10점을 먼저 달성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놀이가 있다고 해보자. 누군가가 10점을 달성했다고 해서 이 놀이가 무조건 끝이 나는 것은 아니다. 이 놀이가 재미있거나 이 놀이에 참여자들이 몰입해 있다면 이 놀이는 몇 번이고 계속될 수 있다. 그래서 가다머는 놀이가 놀이하는 사람을 존재하게 한다고 하였다. 나아가 그는 놀이에 대한 이러한 관점을 예술에도 똑같이 적용하였다. 놀이가 그 본질적 속성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것처럼 예술 작품도 그렇게 존재한다고 설명한 것이다.

4. a와 b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것이다. ①, ②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인물의 이름을 윗글에서 찾아 쓰시오. [10점]

보기

장기는 초나라와 한나라의 전쟁을 가상하여 만든 놀이다. 장기는 초나라 측이 말을 먼저 두고 그다음 한나라 측이 말을 둔다. 서로 번갈아 가며 말을 움직이는데 말에 따라 움직이는 방식에 규칙이 있고 상대측의 궁을 먼저 잡으면 승리한다. 장기에서 승패를 가르는 이러한 게임이 몇 번이고 반복될 수 있다. 장기처럼 전쟁 형식을 본뜬 놀이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많은 이들이 몰입하며 즐기고 있다.

- a. <보기>를 (①)의 관점에서 보면, 장기에서 양측이 차례로 돌아가며 말을 움직여 승패를 가르는 게임이 몇 번이고 반복될 수 있는 것은 놀이의 본질적 속성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군.

- b. <보기>를 (②)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들이 전쟁을 가상하고 다양한 규칙을 가지고 있는 장기를 즐기는 것은 동물과 구분되는 이성적 사유를 바탕으로 놀이하는 인간의 면모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군.

■ 예시 답안

정답

- ① 가다머 ② 하위징아

풀이

제시문에서는 놀이에 관해 본격적으로 연구한 하위징아와 가다머의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 제시문에 따르면 가다머는 “놀이의 본질적 속성 중 하나가 왕복 운동이고, 이쪽과 저쪽을 오가는 왕복을 반복하는 것이 놀이하는 사람을 놀이의 영역으로 끌어들인다”라고 하였다. 이에 근거하면 장기의 왕복 운동, 즉 게임의 반복을 놀이의 본질적 속성으로 본 a의 관점은 ‘가다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①의 정답은 ‘가다머’이다.

제시문에서 하위징아는 “인간은 생물학적인 본능에 의해 단순하게 노는 것이 아니라 논다는 사실을 이성적으로 사유하면서 놀이를 하는 존재이기에 동물과 구분된다.”라고 하였다. 이에 근거하면 전쟁을 가상해 장기를 만들고 장기의 규칙을 만드는 등 동물과 달리 이성적 사유에 바탕을 두어 놀이하는 인간의 면모를 보여준다고 한 b의 관점은 ‘하위징아’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②의 정답은 ‘하위징아’이다.

■ 채점 기준

- ①, ②의 각 항목이 정확하게 기술된 경우만 정답으로 처리함
- ①, ②의 순서가 바뀐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함
- 정답 이외에 다른 답을 추가로 기술한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함
- 부정확한 글자나 문장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함
- 2개 모두가 정답이면 10점
- 1개가 정답이면 5점

문항 5

[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오늘도 또 우리 수탉이 막 쪼아었다. 내가 점심을 먹고 나무를 하러 갈 양으로 나올 때였다. 산으로 올라서려니까 등 뒤에서 푸드득, 푸드득 하고 닭의 헛소리가 야단이다. 깜짝 놀라서 고개를 돌려보니 아니나 다를까 두 놈이 또 얼렀다.

점순네 수탉(은 대강이가 크고 똑 오소리같이 실박하게 생긴 놈)이 덩저리 적은 우리 수탉을 함부로 해내는 것이다. 그것도 그냥 해내는 것이 아니라 푸드득, 하고 면두를 쪼고 물러섰다가 좀 사이를 두고 푸드득, 하고 모가지를 쪼았다. 이렇게 멧을 부려 가며 여지없이 닭아 놓는다. 그러면 이 못생긴 것은 쪼일 적마다 주둥이로 땅을 받으며 그 비명이 킁, 킁, 할 뿐이다. 물론 미처 아물지도 않은 면두를 또 쪼여 붉은 선혈은 푹푹 떨어진다.

이걸 가만히 내려다보자니 내 대강이가 터져서 피가 흐르는 것같이 두 눈에서 불이 버쩍 난다. 대뜸 지게 막대기를 메고 달려들어 점순네 닭을 후려칠까 하다가 생각을 고쳐먹고 헛매질로 떼어만 놓았다.

이번에도 점순이가 쌈을 붙여 냈을 것이다. 바짝바짝 내 기를 올리느라고 그랬음에 틀림없을 것이다. 고놈의 계집애가 요새로 들어서서 왜 나를 못 먹겠다고 그렇게 아르릉거리는지 모른다.

나를 전 감자 쪼간만 하더라도 나는 저에게 조금도 잘못된 것은 없다.

계집애가 나물을 캐러 가면 갔지 남 울타리 엮는 데 썩이질을 하는 것은 다 뭐냐. 그것도 발소리를 죽여가지고 등 뒤로 살며시 와서

“애! 너 혼자만 일하니?” 하고 긴치 않은 수작을 하는 것이다.

어제까지도 저와 나는 이야기도 잘 앓고 서로 만나도 본 척 만 척하고 이렇게 점잖게 지내던 터이런만 오늘로 갑작스레 대견해졌음은 웬일인가. 향차 망아지만 한 계집애가 남 일하는 놈 보구…….

“그럼 혼자 하지 때루 하디?”

내가 이렇게 내뱉는 소리를 하니까,

“너 일하기 좋니?”

또는

“한여름이나 되거든 하지 벌써 울타리를 하니?”

잔소리를 두루 늘어놓다가 남이 들을까 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는 그 속에서 깔깔댄다. 별로 우스울 것도 없는데 날씨가 풀리더니 이놈의 계집애가 미쳤나 하고 의심하였다. 게다가 조금 뒤에는 즈 집깨를 할금할금 돌아다보더니 행주치마의 속으로 꺾던 바른손을 뽑아서 나의 턱밑으로 불쑥 내미는 것이다. 언제 구웠는지 아직도 더운 김이 뻥 끼치는 감자 세 개가 손에 뿌듯이 쥐였다.

“느 집엔 이거 없지?”하고 생색 있는 큰소리를 하고는 제가 준 것을 남이 알면 큰일 날 테니 여기서 얼른 먹어 버리란다. 그리고 또 하는 소리가

“너 봄 감자가 맛있단다.”

“난 감자 안 먹는다, 너나 먹어라.”

나는 고개도 돌리려 하지 않고 일하던 손으로 그 감자를 도로 어깨 너머로 쑥 밀어 버렸다.

그랬더니 그래도 가는 기색이 없고, 뿐만 아니라 썩근썩근하고 심상치 않게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진다. 이 건 또 뭐야, 싫어서 그때야야 비로소 돌아다보니 나는 참으로 놀랐다. 우리가 이 동리에 온 것은 근 삼 년째 되어 오지만 여태껏 가무잡잡한 점순이의 얼굴이 이렇게까지 홍당무처럼 새빨개진 법이 없었다. 게다가 눈에 독을 올리고 한참 나를 요렇게 쏘아보더니 나중에는 눈물까지 어리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바구니를 다시 집어 들더니 이를 꼭 악물고는 엎디어질 듯 자빠질 듯 눈독으로 횡허케 달아나는 것이다.

어쩌다 동리 어른이

“너 얼른 시집 가야지?”하고 웃으면

“염려 마서유. 갈 때 되면 어련히 갈라구…….”

이렇게 천연덕스레 받는 점순이었다. 본시 부끄럼을 타는 계집애도 아니거니와 또한 분하다고 눈에 눈물을 보일 얼병이도 아니다. 분하면 차라리 나의 등어리를 바구니로 한번 모질게 후려 썰리고 달아날지언정.

그런데 고약한 그 꼴을 하고 가더니 그 뒤로는 나를 보면 잡아먹으려고 기를 북북 쓰는 것이다.

설혹 주는 감자를 안 받아먹은 것이 실례라 하면 주면 그냥 주었지 ‘느 집엔 이거 없지’는 다 뭐냐. 그러잖아도 저희는 마름이고 우리는 그 손에서 배재를 얻어 땅을 부치므로 일상 굶실거린다. 우리가 이 마을에 처음 들어와 집이 없어서 곤란으로 지낼 제 집터를 빌리고 그 위에 집을 또 짓도록 마련해 준 것도 점순네의 호의였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농사 때 양식이 달리면 점순이네한테 가서 부지런히 꾸어다 먹으면서 인품 그런 집은 다시없으리라고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열일곱씩이나 된 것들이 수군수군하고 붙어 다니면 동리 소문이 사납다고 주의를 시켜 준 것도 또 어머니였다. 왜냐하면 내가 점순이 하고 일을 저질렀다가는 점순네가 노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땅도 떨어지고 집도 내쫓기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까닭이었다.

- 김유정, 「동백꽃」

5. <보기>는 위 소설에 나타난 사건들이다. 사건이 발생한 시간적 순서대로 a, b, c를 배열하시오. [10점]

보기

- a. ‘나’는 점심을 먹은 후 산으로 올라갈 때, 점순네 수탉과 자기네 수탉이 싸우는 것을 발견한다.
- b. ‘점순’은 울타리를 엮는 ‘나’에게 와서 혼자만 일하는지를 묻는다.
- c. ‘점순’은 다시 바구니를 집어 들고 논둑으로 달아난다.
- d. ‘나’의 가족은 마을로 오면서 점순네 덕분에 집터를 빌리게 된다.

(d) → (①) → (②) → (③)

예시 답안

정답

b, c, a

풀이

이 작품은 1936년에 발표된 단편 소설로, 1930년대 농촌을 배경으로 소작농의 아들인 ‘나’와 마름의 딸인 ‘점순이’의 관계와 갈등을 그린 소설이다. ‘점순이’는 ‘나’에게 관심을 표명하며 감자를 주지만 거절을 당한다. 이에 야속함을 느낀 점순은 닭싸움을 시키는데 이는 모두 나에 대한 관심을 끌기 위함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 소설의 시간적 순서대로 행위를 배열하면, 나의 가족은 3년 전 마을로 오면서 점순네 덕분에 집터를 빌리게 된다. 그리고 나흘 전 점순은 울타리를 엮는 나에게 와서 혼자만 일하는지 묻고 구운 감자를 주지만, 내가 거절하자 바구니를 집어들고 논둑으로 달아난다. 그리고 오늘 나는 점심을 먹은 후 산으로 올라갈 때, 점순네 수탉과 우리 수탉이 싸우는 것을 발견한다. 따라서 정답은 ① b → ② c → ③ a 순이다.

채점 기준

- 정답 이외에 다른 답을 추가로 기술한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함
- 부정확한 글자나 문장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함
- 3개 맞으면 10점
- 2개 맞으면 7점
- 1개 맞으면 4점
- 아래의 경우 다 맞음
- * ① b, ② c, ③ a

2027학년도 모의논술

문항 1

[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검정 수목 두루마기에
 흰 동정 달아 입고
 창에 기대면

박 년출 상기 남은
 기울은 울타리 위로 장독대 위로
 새하얀 눈이
 내려 쌓인다

홀로 지니던 값진 보람과
 빛나는 자랑을 모조리 불사르고
 소슬한 바람 속에
 낙엽처럼 무념(無念)히 썩어 가면은

이 허망한 시공(時空) 위에
 내 외로운 영혼 가까이
 꽃다발처럼 꽃다발처럼
 하이얀 눈발이
 내려 쌓인다

마음 이리 고요한 날은
 아련히 들려오는
 서라벌 천년(千年)의 풀피리 소리

비애(悲哀)로 하여 내 혼이 야위기에는
 절망이란 오히려
 나리는 눈처럼 포근하고나.

조지훈, 「눈 오는 날에」

1. <보기>는 위의 시 작품을 분석한 글이다. <보기>의 ①~③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말을 위의 시에서 각각 찾아 쓰시오. [10점]

<보기>

위의 시에서 화자는 삶의 보람과 자랑을 모두 불사른 채 소슬한 바람 속에서 썩어 가는 (①)처럼 무념(無念)의 상태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내리는 눈을 외로운 영혼에 대한 위안으로 받아들이게 된다고 말한다. 욕망과 집착을 완전히 내려놓은 텅 빈 상태에서만 절망이 역설적으로 ‘포근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시의 화자는 하이얀 눈발이 영혼 가까이 내려 쌓이는 장면의 아름다움을 비유하여 눈발이 마치 (②)와/과 같다고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화자의 고요한 마음을 흔드는 청각적 이미지인 (③) 소리는 신라 천년의 역사적 공간감과 결합하여 내면의 비애를 심화시키는 시어이다.

① _____, ② _____, ③ _____

■ 예시 답안

정답

- ① 낙엽 ② 꽃다발 ③ 풀피리

풀이

작품의 3연에서 ‘씩어 가면은’의 ‘-면은’은 조건절 어미로, 삶의 보람과 자랑을 모두 내려놓고 낙엽처럼 무념히 켜어 가는 상태가 선행 조건이 됨을 나타낸다.

보기에서 ‘소슬한 바람 속에서 켜어 가는 (①)처럼 무념(無念)의 상태에 이르렀을 때’라고 제시하므로, (①)에는 화자가 자신을 비유한 자연물이 들어가야 한다. 원문에서 무념히 켜어 가는 존재로 비유된 것은 ‘낙엽’이다. 따라서 정답은 ‘낙엽’이다.

작품의 4연은 하이얀 눈발이 내려 쌓이는 장면을 ‘꽃다발’에 직유하는 표현이며, ‘꽃다발처럼’을 한 행 안에서 연속으로 두 번 반복하여 눈의 아름다운 이미지와 위안의 감정을 강조하고 있다. 보기에서 ‘눈발이 마치 (②)와/과 같다고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므로, (②)에는 눈발에 비유된 대상의 명사형이 들어가야 한다. ‘꽃다발처럼’에서 직유의 대상은 ‘꽃다발’이므로, 정답은 ‘꽃다발’이다.

작품의 해당 부분인 5연에서 화자는 고요한 마음 상태에서 서라벌 천년의 역사적 공간감이 담긴 풀피리 소리를 청각적으로 환기하며, 이 소리가 내면의 비애를 심화시킨다고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보기의 설명에 따라 (③)에는 청각적 이미지에 해당하는 시어가 들어가야 한다. 원문의 ‘서라벌 천년(千年)의 풀피리 소리’에서 청각적 이미지의 핵심 시어는 ‘풀피리’이므로, 정답은 ‘풀피리’이다.

■ 채점 기준

- ①②③ 각 항목이 정확하게 기술된 경우만 정답으로 처리함
- ①②③ 순서가 바뀐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함
- 정답 이외에 다른 말을 추가로 기술한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함
- 부정확한 글자나 문장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함
- 3개 모두 정답: 10점 / 2개 정답: 7점 / 1개 정답: 4점

- ① 낙엽 ‘낙엽처럼’ (조사 포함) → 오답
 ② 꽃다발 ‘꽃다발처럼’ (조사 포함) → 오답 / ‘하이얀 눈발’ → 오답
 ③ 풀피리 ‘풀피리 소리’ (추가 단어 포함) → 오답

문항 2

[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프랑스의 기호학자이자 문예 비평가인 롤랑 바르트는 대중 매체 속의 이미지나 언어적 표현물이 단순한 오락이나 소비 대상이 아니라 특정한 사회·문화적 맥락을 담고 있으며, 그 수용 과정에서 특정 이념이 대중에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고 보았다. 그는 이러한 현상을 현대의 ‘신화’라고 명명하고, 일상 속 기호에 숨어 있는 이념과 권력의 작동 방식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바르트는 소쉬르의 이론을 분석 도구로 활용하였다. 소쉬르는 언어를 기호로 보았고, 기호는 음성이나 문자 등 감각적으로 지각할 수 있는 ‘기표’와 그것이 가리키는 ‘기의’라는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나무’라는 말은, 말소리 혹은 문자의 형태로 우리가 지각할 수 있는 기표와 ‘줄기와 가지를 가진 목질 식물’이라는 기의가 결합한 하나의 기호이다. 소쉬르는 이러한 기호 체계에서 기표와 기의 사이의 관계가 본질적으로 자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즉, 특정 기표가 반드시 특정 기의를 가리켜야 할 필연성은 없으며, 다만 사회적 약속과 관습에 의해 그렇게 기능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바르트는 기표가 갖고 있는 자의성, 즉 사회적 약속과 관습에 의해 특정한 기의를 가리킨다는 구조적 특성에 주목하였다.

바르트는 우리가 대중 매체나 또는 일상에서 마주하는 이미지나 언어적 표현물을 기호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는 하나의 기표가 단일한 기의를 전달하는 기호를 1차 기호 체계라고 하였다. 그리고 1차 기호 체계는 사회적·역사적 맥락과 결합함으로써 또 다른 층위의 기의를 생산한다고 보았다. 기존의 기호가 다시 하나의 기표처럼 작용하고 여기에 새로운 기의가 덧붙여진 것이다. 바르트는 이렇게 형성된 2차 기호 체계를 현대의 신화라고 하였다. 이는 사회적·이념적 맥락에 의해 덧붙여진 기의를 사람들이 오래되고 자연스러운 사실처럼 받아들이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바르트는 대중 매체를 통해 현대의 신화가 사람들에게 무비판적으로 수용되는 점에 주목하였고, 대중 매체나 문화 산업은 중립적이지 않으며 특정 이념을 자연스럽게 재생산하는 장치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대중은 어떠한 이미지나 텍스트를 해석할 때 2차 기호 체계가 작동하고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이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필수적이라고 하였다.

2. <보기>는 바르트가 윗글에서 밝힌 자신의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 예로 든 것이다. <보기>의 ①, ②, ③에 각각 들어갈 적절한 2음절의 단어를 윗글에서 찾아 쓰시오. [10점]

<보기>

바르트는 프랑스의 한 잡지 표지를 예로 들었다. 이 표지에는 프랑스 국기를 향해 거수경례를 하는 흑인 군인의 사진이 실려 있었다. 이 표지 전체가 2차 기호 체계에서는 하나의 (①)로/으로 작동하고, 여기에 ‘프랑스는 인종 차별 없는 관대한 국가’라는 (②)가/이 덧붙는다. 이렇게 표지 이미지가 프랑스의 다문화 포용성, 흑인의 국가 충성심, 프랑스의 정의로움 등을 암묵적으로 전달하고, 사람들이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이 기호 체계는 (③)가/이 된다. 정교한 연출과 반복적인 노출을 통해 이미지가 전달하는 사회적·이념적 의미는 독자에게 마치 본래부터 당연한 사실처럼 수용되는 것이다.

① _____, ② _____, ③ _____

■ 예시 답안

정답

① 기표 ② 기의 ③ 신화(‘현대의 신화’는 오답)

풀이

제시문은 언어를 기표와 기의로 구분한 소쉬르의 이론을 일상에서 마주하는 이미지나 언어적 표현물에 대한 분석으로 확장한 롤랑 바르트의 이론을 다루고 있다. 바르트의 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쉬르의 언어 이론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 소쉬르는 언어를 기호로 보았고, 이때의 ‘기호’는 음성이나 문자 등 감

각적으로 지각할 수 있는 ‘기표’와 그것이 가리키는 개념적 내용인 ‘기의’라는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바르트는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이미지나 언어적 표현물이 그 자체로 ‘1차 기호 체계’를 이루며, 여기에 사회적·역사적 맥락이 결합하여 또 다른 ‘2차 기호 체계’를 이룬다고 하였고, 이를 일종의 ‘신화’로 이해하였다. 이상과 같은 이해를 바탕으로 ‘프랑스 국기를 향해 거수경례하는 흑인 군인의 사진’에 담긴 기호 체계를 분석하는 것이 문항의 핵심이다.

바르트는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이미지나 언어적 표현물을 기호로 볼 수 있다고 했으므로 ‘프랑스 국기를 향해 거수경례를 하는 흑인 군인의 사진’은 하나의 기표로 작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①의 정답은 ‘기표’이다.

‘프랑스 국기를 향해 거수경례를 하는 흑인 군인의 사진’이 ‘프랑스는 인종 차별 없는 관대한 국가’라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할 때 이러한 의미는 바르트가 말한 ‘2차 기호 체계’에서는 ‘기의’에 해당한다. 따라서 ②의 정답은 ‘기의’이다.

이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이미지나 텍스트에 사회적·역사적 맥락이 결합하여 또 다른 ‘2차 기호 체계’를 이룬 것을 바르트는 현대의 신화라고 불렀다. 따라서 ③의 정답은 ‘신화’이다.

■ 채점 기준

- ①, ②, ③의 각 항목이 정확하게 기술된 경우만 정답으로 처리함
- ①, ②, ③의 순서가 바뀐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함
- 정답 이외에 다른 답을 추가로 기술한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함
- 부정확한 글자나 문장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함
- 3개 모두가 정답이면 10점
- 2개가 정답이면 7점
- 1개가 정답이면 4점

문항 3

[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착오 송금이란 송금인이 실수로 의도하지 않은 계좌에 돈을 보내는 경우를 말하며, 입력 오류, 수취인 착오 선택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 착오 송금이 발생했을 때, 송금인은 즉시 해당 은행에 이를 신고하고 반환을 요청하며, 은행은 중개자로서 수취인에게 송금 실수임을 알리고 자발적으로 반환을 유도한다. 이때 수취인이 동의하면 간단하게 환급 절차가 이루어지지만, 반환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은 경우에는 상황이 복잡해진다.

법적으로 볼 때 착오 송금인은 민법 제741조에 따라 부당 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조항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송금인이 민사 소송을 통해 수취인을 상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러나 소송은 절차가 번거롭고 시간과 비용이 드는 데다, 수취인이 고의적으로 반환을 회피하는 경우 송금인의 부담은 더욱 커진다.

일부 수취인은 본인의 계좌에 갑작스럽게 입금된 금액을 처음에는 자신의 정당한 수입으로 오해할 수 있고, 또 일부 수취인은 송금인의 연락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입금만으로는 착오 송금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반환 요청을 받거나 은행을 통해 연락을 받으면 수취인은 타인의 돈을 잠깐 맡고 있는 보관자가 된다. 형사상으로 수취인이 송금 실수임을 인지하고도 고의로 반환을 거부하거나 돈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자가 반환을 거부하거나 이를 임의로 사용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횡령죄가 성립할 경우 수취인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은행은 송금 행위의 통로 역할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착오 송금을 발생시킨 주체는 아니다. 착오 송금은 송금인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은행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금융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수취인에게 연락, 반환 의사 확인, 신고 절차 안내 등을 수행하며,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에서도 중요한 협력 주체로 참여한다. 그러나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은행은 연락처나 주소와 같은 수취인의 개인 정보를 송금인에게 제공할 수 없고, 반환을 강제할 권한도 없다. 이러한 법적, 제도적 한계는 송금인에게 은행이 소극적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지만, 실제로는 개인 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제한을 받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송금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이다. 이 제도는 예금 보험 공사가 운영하며, 착오 송금한 송금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예금 보험 공사가 지원 계정에서 착오 송금 수취인에 대한 부당 이득 반환 채권을 매입하고 수취인에게 자진으로 돌려줄 것을 안내한다. 만약 수취인이 불응 시 법원에 지급 명령을 신청하여 돈을 회수하며 회수 비용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착오 송금인에게 돌려준다. 신청 요건은 첫째, 착오 송금 금액이 건당 5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일 것, 둘째,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일 것, 셋째, 수취인이 자발적으로 반환하지 않을 것이다. 이 제도는 송금인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하며, 제도 시행 이후 실제 회수율도 일정 수준 향상되었다.

3. <보기>는 착오 송금 사례와 윗글을 읽은 학생이 그 사례에 보인 반응이다. <보기>의 ①, ②, ③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말을 윗글에서 찾아 각각 3어절로 쓰시오. [10점]

<보기>

가. 착오 송금 사례

A는 지인에게 300만 원을 보내려다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다른 사람에게 잘못 송금하였다. A는 즉시 해당 은행에 자신이 잘못 송금한 사실을 신고하고, 해당 계좌번호 주인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은행 측은 A의 요구를 거절한 후에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통해 돈을 돌려받을 것을 안내하였다. 한편, 은행 측은 수취인 B에게 전화하여 입금된 금액이 송금 실수임을 고지하고 반환 의사를 물었지만, 수취인 B는 반환 거부 의사를 밝힌 후에 그 돈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나. 학생의 반응

a. 은행 측이 송금인 A의 요구대로 수취인 B의 연락처를 알려 주었다면, 이는 (①)의 위반 사례가 되겠군.

b. 수취인 B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착오 송금된 것임을 알았음에도 돌려주지 않는다면, 송금인 A는 민사 소송을 통해 수취인 B를 상대로 (②)을/를 청구할 수 있겠군.

c. 위의 소송은 절차가 번거롭고 시간과 비용이 드는 한계가 있으므로 송금인 A는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운영 기관인 (③)에 착오 송금 반환 지원을 신청하면 되겠군.

① _____, ② _____, ③ _____

■ 예시 답안

정답

① 개인 정보 보호법(‘개인 정보 보호’는 정답) ② 부당 이득 반환 ③ 예금 보험 공사

풀이

제시문은 착오 송금에 대해 다루고 있다. <보기>는 착오 송금 사례(착오 송금인 A, 수취인 B, 은행 등 여러 주체들의 반응 등)와 제시문을 읽은 학생이 그 사례에 보인 반응을 정리한 것이다.

a: 4문단에 제시된 바와 같이 착오 송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은행은 송금인에게 수취인의 개인 정보(연락처나 주소 등)를 송금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이를 알려주면 ‘개인 정보 보호법’ 관련 법률에 따라 제한받는다. 따라서 ①의 정답은 ‘개인 정보 보호법’이다.

b: 2문단에 제시된 민법 제741조에 따라 착오 송금인은 착오 송금된 돈을 받은 수취인을 대상으로 부당 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②의 정답은 ‘부당 이득 반환’이다.

c: 4문단에 제시된 바와 같이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은 예금 보험 공사이다. 송금인 A도 해당 신청 조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예금 보험 공사에 착오 송금 반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③의 정답은 ‘예금 보험 공사’이다.

■ 채점 기준

- ①, ②, ③의 각 항목이 정확하게 기술된 경우만 정답으로 처리함
- ①, ②, ③의 순서가 바뀐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함
- 정답 이외에 다른 답을 추가로 기술한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함
- 부정확한 글자나 문장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함
- 3개 모두가 정답이면 10점
- 2개가 정답이면 7점
- 1개가 정답이면 4점

문항 4

[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인간의 폐는 포도송이의 포도알과 같은 수많은 작은 폐포들로 이루어져 있다. 폐포는 I 형 폐포 세포와 II 형 폐포 세포가 얇은 세포층을 이루고 있으며,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한다. 폐포는 탄성력이 있어 부피가 늘어났다가 다시 복원되는 특성을 가진다. 늘어나는 정도를 신전성이라고 하는데, 신전성이 클수록 일정량의 공기를 들이마실 때 사용하는 에너지는 줄어들고 적은 힘으로도 원활하게 숨을 쉴 수 있다.

폐포의 표면은 얇은 액체층으로 싸여 있다. 액체층에는 액체의 표면이 스스로 수축하여 가능한 한 작은 면적을 취하려는 힘인 표면장력이 작용하는데, 이 힘은 일반적인 분자간의 인력보다 강한 물분자간의 인력 때문에 형성된다. 폐포에 작용하는 표면장력 때문에 폐포는 오그라들려는 경향을 보이고 폐의 신전성은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폐포가 오그라들려는 경향을 보이더라도 폐포의 허탈*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그 이유는 표면장력에 의해 발생하는 오그라들려는 힘과 폐포 내부의 공기압이 서로 평형을 이루어 안정된 부피가 유지되기 때문이다.

폐포가 안정된 부피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공기압은 라플라스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 라플라스 법칙에 따르면 폐포의 안정된 부피를 위해 필요한 내부의 공기압(P)은 표면 장력(T)에 정비례하고, 폐포의 반지름(r)에 반비례한다. 즉 표면장력이 커질수록 폐포를 유지하기 위해 더 높은 공기압이 필요하고, 폐포의 반지름이 작아질수록 더 높은 내부의 공기압이 요구된다. 즉 폐포는 작을수록 더 쉽게 허탈이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작은 폐포라 하더라도 허탈은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폐포를 이루고 있는 II 형 폐포 세포가 계면활성제를 분비하여 물분자 사이의 인력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특히 폐포가 작아질수록 계면활성제의 농도가 더 높아져 표면장력은 더 많이 줄어든다. 만약 계면활성제가 부족해지면 작은 폐포의 허탈이 촉진되어 호흡기능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허탈(collapse): 폐포가 정상적으로 공기로 확장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바람빠진 풍선처럼 쭈그러들어 부피가 줄어든 상태

4. <보기>는 위글의 내용 일부를 정리한 것이다. <보기>의 ①, ②, ③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말을 위글에서 찾아 각각 한 단어로 쓰시오. [10점]

<보기>

인간의 폐는 포도송이의 포도알과 같은 수많은 작은 폐포들로 이루어져 있다. 폐포는 탄성력이 있어 부피가 늘어났다가 다시 복원되는 특성을 가지는데 늘어나는 정도를 신전성이라고 한다. 이러한 폐포는 I 형 폐포 세포와 II 형 폐포 세포가 얇은 세포층을 이루고 있으며, 여기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원활하게 호흡할 수 있다. 그러나 II 형 폐포 세포가 (①)을/를 충분히 분비하지 못하면 폐포의 (②)이/가 쉽게 일어나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다.

또한 폐포의 표면을 싸고 있는 얇은 액체층에는 일반적인 분자 간의 인력보다 강한 물 분자 간의 인력 때문에 형성되는 힘인 (③) 때문에 폐포는 오그라들려는 경향을 보이지만, 폐포 내부의 공기압이 서로 평형을 이루어 안정된 부피를 유지하게 된다.

① _____, ② _____, ③ _____

예시 답안

정답

① 계면활성제 ② 허탈 ③ 표면장력

풀이

인간의 폐는 포도송이의 포도알과 같은 수많은 작은 폐포들로 이루어져 있다. 폐포는 탄성력이 있어 부피가 늘어났다가 다시 복원되는 특성을 가지는데 늘어나는 정도를 신전성이라고 한다. 신전성이 클수록 일정량의 공기를 들이마실 때 사용하는 에너지는 줄어들고 적은 힘으로도 원활하게 숨을 쉴 수 있다. 폐포가 안정된 부피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공기압은 반지름에 반비례한다. 따라서 큰 폐포보다 작은 폐포는 같은 공기압일 경우 허탈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데, 허탈은 폐포가 정상적으로 공기로 확장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바람빠진 풍선처럼 쭈그러들어 부피가 줄어든 상태를 말한다. 그러나 작은 폐포라 하더라도 허탈은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그 이유는 폐포를 이루고 있는 II형 폐포 세포가 계면활성제를 분비하는데, 계면활성제가 물 분자 사이의 인력을 방해하여 폐포의 표면장력이 줄어들고 폐포가 오그라들려는 힘은 약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폐포를 이루고 있는 II형 폐포 세포가 계면활성제를 충분히 분비하지 못하면 폐포의 허탈이 쉽게 일어나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 호흡 기능이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①번 답은 ‘계면활성제’이고, ②번 답은 ‘허탈’이다. 또한 폐포의 표면을 싸고 있는 얇은 액체층에는 일반적인 분자 간의 인력보다 강한 물 분자 간의 인력 때문에 형성되는 힘인 표면장력 때문에 폐포는 오그라들려는 경향을 보이지만, 폐포 내부의 공기압이 서로 평형을 이루어 안정된 부피를 유지하게 된다. 따라서 ③번 답은 ‘표면장력’이다.

■ 채점 기준

- ①, ②, ③의 각 항목이 정확하게 기술된 경우만 정답으로 처리함
- ①, ②, ③의 순서가 바뀐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함
- 정답 이외에 다른 답을 추가로 기술한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함
- 부정확한 글자나 문장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함
- 3개 모두가 정답이면 10점
- 2개가 정답이면 7점
- 1개가 정답이면 4점

써봄

기출로 연습했다면, 이제 써보고 바로 첨삭받자.

Google Gemini 기반 한국어 논술 자동 첨삭 서비스

01

4개 영역 점수

논리구조 · 근거타당성 · 주장명확성 · 언어표현 영역별로 점수를 매겨 줍니다.

02

상세 피드백

강점, 개선점, 구체적인 제안사항까지 한 번에 확인합니다.

03

일괄 첨삭

교사·강사는 학생 답안을 최대 10편까지 한꺼번에 올려 처리할 수 있습니다.

04

간편한 업로드

PDF · DOCX · TXT 파일을 그대로 올리면 됩니다.

이용 안내

무료 체험	회원가입 시 3회 무료 분석
개인 플랜	월 9,900원
교사 플랜	월 29,900원

논술 수험생 · 논술 교사와 강사 · 학원과 교육기관



writegrow.net

QR 코드를 스캔하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